

제 목	내 인생의 플레이리스트 : 밴드 이야기		
소속 대학	글로벌융합대학	소속 학과	융합과학수사학과
학 번	2024****	이 름	진**
이메일		연락처	

### 플레이리스트의 시작

처음 기억나는 노래를 떠올려보면, 나는 유독 CCM이 생각난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친구들이 케이팝을 들을 때 나는 CCM을 듣고 있었다.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만난 엑소 팬인 친구 덕분에 내 케이팝 세상이 시작되었고, 담임 선생님이 들려주신 웨스트라이프의 My Love가 내 팝송 세상을 열었다. 이후에는 질리도록 들은 CCM을 제외한 모든 음악이 내 플레이리스트에 담겼다. 그렇게 다양한 음악을 들으며 지내던 어느 날, 우연히 한 밴드의 음악을 듣게 되었다. 시험 성적표를 받고 침울해져 있을 때였는데, 이 노래가 나를 신나게 만들었다. 일정하게 들리는 드럼, 시원한 기타 리프, 보컬의 단단한 목소리가 단숨에 마이너스였던 내 기분을 플러스로 만들어 버렸다. 그 후로 나는 '밴드 소리가 좋은 곡'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 밴드 그 자체를 좋아하게 되어 있었다. 이 글은 이렇게 밴드 음악을 좋아하게 된 내가 그 매력을 조금이라도 전하고 싶어서 쓰는 글이다. 혹시 당신이 아직 밴드 음악을 한번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다면, 오늘 한번 들어보기를 권한다.

### 밴드와 사랑에 빠지다

처음엔 단순히 밴드 소리가 좋은 노래가 좋았다. 특히 기타와 드럼 소리가 잘 들리는 곡들이었다. 머릿속이 복잡할 때마다 이런 음악을 들으면 잠시나마 문제들을 저편에 두고 편안해질 수 있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밴드 플레이리스트'를 검색했고, 추천곡에도 밴드 음악만 뜨게 되었다. 밴드 음악이라면 뭐든 가리지 않고 듣다 보니, 같은 밴드 음악이지만 잔잔한 곡도, 귀가 시끄러운 곡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이 양극단을 오가는 밴드의 매력이 너무 좋다.

잠을 푹 자고 일어나서 맞이한 아침을 더욱 상쾌하게 보내고 싶을 때, *오월오일의 'SSY'*를 듣는다. 통통 튀는 전주가, 귀여운 가사가 마음을 설레게 한다. 특히 비가 온 다음 날 아침에 이 곡을 들으면서 길을 걸어가면 오늘 하루는 어떤 일이 있어도 행복할 것만 같은 느낌이 마구마구 든다. 버스 옆자리에 앉은 낯선 이에게 먼저 "좋은 하루입니다."라고 인사할 수 있을 만큼 기분이 좋아진다.

나른한 오후에 티타임을 가질 때면 *LET ME KNOW의 'Svveet Pea'*를 듣는다. 카페가 소란스러워도 이 곡을 듣는 순간, 곧 나만의 공간으로 바뀐다.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머금은 채 눈을 감으면 곡의 분위기와 동화되어 나 자신에게 더 집중할 수 있다. 복잡한 고민은 잠시 내려두고 아름다운 주변 풍경을 돌아볼 여유도 생긴다.

꿈이 있는데 이 길을 계속 가는 것이 맞는지 헷갈릴 때는 *Xdinary Heroes의 'Pluto'*를 다. 들었

다. 자꾸만 주변과 비교하게 되고, 지금이라도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어폰을 끼고 이 노래를 들으면, “so don't you dare me, 아니라는 말은 하지 마. I'll still be standing, 여긴 나의 universe”라는 곡의 가사처럼 내 우주를 향해서 굳건히 걸어갈 힘이 생긴다.

우연히 듣게 된 밴드 곡이 좋아서 계속 들었다. 그러다 보니 이 밴드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앞으로 써 내려갈 이야기가 기대되었다. 이 곡을 쓰고 연주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일지 궁금해졌다. 그렇게 이 밴드를 좋아하게 되었다.

### 나는야 밴드맨. 아니, 밴드걸

밴드를 좋아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나도 밴드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나 역시도 이런 생각으로 나는 한림대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밴드 동아리를 꿈꿔왔다. ‘밴드’라는 같은 취향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활동하면 즐거울 것 같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서 밴드 동아리에 지원했다. 집에서 혼자 취미로 몇 번 쳐 본 기타가 다였지만, 음악을 좋아하는 마음 하나로 들어갔다. 동아리방에서 처음 일렉기타를 만졌을 때, 통기타와 손가락 느낌도 다르고 소리도 달라서 적응이 어려웠다. 내가, 이 기타로 곡을 연주할 수 있을까 싶었지만, 합주할 곡이 정해지고 연습하면서 기타와 친해질 수 있었다. 첫 합주는 쉽지 않았다. 기타 악보만 보고 연습해서 다른 악기들과 다 같이 연주할 때 기타가 들어가는 타이밍이 헛갈렸고, 긴장해서 실수도 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합주를 거듭할수록 어색했던 소리는 점점 맞춰지고 곡이 완성되어 갔다. 연습이 끝나면 손가락은 아픈데 묘한 쾌감이 있었다. 그렇게 친구들과 매주 합주하고, 서로 웃고 친해지고, 곡에 대한 의견을 나누면서 점점 ‘진짜 밴드’가 되어갔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첫 정기 공연 무대에 선 경험이었다. 밴드의 일원으로서 처음 하는 공연이었기에 더 긴장되고 떨렸다. 가호의 ‘시작’과 데이식스의 ‘예뻐어’의 총 두 곡을 연주하게 되어 더 바쁜 합주 시간을 보내고 드디어 공연 당일이 되었다. 무대 뒤에서 순서를 기다리며 심호흡했다. 옆에서 나보다 더 떨고 있는 친구를 달래주느라 긴장이 가신 것도 잠시, 무대에 올라갈 차례가 되었다. 음 이탤이 날까 봐 걱정도 했지만, 막상 무대에 올라서 친구들과 눈빛을 교환하는 순간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무대를 보여주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게 드럼의 신호로 우리만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는 생각에 더 긴장돼 앞을 바라보기가 어려웠지만 곡이 진행되면서 점차 긴장이 풀리고 나를 보러 와준 사람들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예뻐어’를 선보일 때, 이 곡을 알아 같이 불러주고 플래시를 흔들어준 관객들이 너무 아름다웠다. 리허설 때부터 본 공연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준 친구들이 정말 고마웠다. 첫 공연을 축하한다며 꽃다발을 받았는데, 이때까지 받은 꽃다발 중에 제일 예쁜 꽃이었다. 또, 면담 시간에 지나가듯 말한 공연을 잊지 않고 보러 와주신 교수님도 너무 감사했다.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동적이었다.

밴드는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은 여러 명이지만 연주하는 곡은 하나이다. 여럿이 제각기 노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서 하나가 되어 같이 움직이는 음악이었다. 공연 중에 친구가 실수하면 티 나지 않게 자연스럽게 덮어주고, 누가 멋지게 치면 다 같이 칭찬한다. 그렇게 함께 만들어가는 음악이 진짜 밴드의 맛이라는 걸 느꼈다.

그 이후로 나는 노래를 들을 때, “여기 기타는 누가 쳤을까?”, “드럼이 어떻게 박자를 이렇게 쪼갠지?” 하며 세세한 부분을 신경 써서 듣게 되었다. 듣는 귀가 바뀌었고, 음악을 대하는 마음도 바뀌었다.



<합주 연습하면서 맞춘 기타 톤 사진>



<정기공연에서 받은 꽃다발>

### 밴드의 꽃, 라이브 연주

수능이 끝나고, 가장 먼저 한 건 콘서트 예매였다. 밴드를 좋아하게 된 뒤로 늘 ‘라이브 공연을 꼭 보고 싶다’라고 생각했는데, 수능이 끝나고 자유의 몸이 되자 바로 콘서트장으로 달려간 것이다. 그리고 그날, 나는 이어폰으로 듣던 밴드와 무대 위의 밴드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다. 무대 조명이 켜지고 내 바로 앞에서 기타가 울리는 순간, 그 첫 떨림을 잊을 수 없었다. 음원에서 느낄 수 없던 진동, 멤버들이 서로를 바라보고 웃으면서 연주하는 그 모습이 너무 소중했다.

밴드의 라이브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곡을 그 순간에 새로 만드는 것 같았다. 어떤 날은 원곡과 똑같이 부르기도 하고, 어떤 날은 한 키를 높여서 부르기도 한다. 그날의 온도, 그날의 무대, 팬들의 호응이 다 합쳐져 새로운 곡이 된다. 그래서 밴드 팬들이 라이브를 좋아하고 콘서트를 끊지 못하는 것 같다. 나도 처음엔 그냥 음원만 들어도 좋다고 생각하는 팬이었지만, 지금은 항상 ‘오늘의 무대’를 기대하는 팬이 되었다. 야외 페스티벌도 갔다. 작은 콘서트장이 아닌 넓은 잔디밭 위에 이 공연을 보기 위해 모인 수천 명의 관객들과 같이 환호하고, 무대를 즐겼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날의 무대를 완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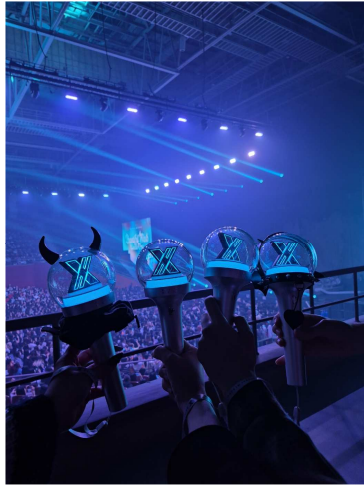
<처음으로 간 콘서트>



<밴드 9001의 콘서트 현장>



<처음으로 간 페스티벌 사진>



<Xdinary Heroes 콘서트 사진>



음악방송을 봐도 MR인지 라이브인지 구분하지 못하던 내가 이제는 악기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공연 영상만 봐도 그 공연장에 함께이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콘서트가 끝나자마자 공연 시작 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진다. 영원히 콘서트에 머물고 싶다. 그래서 밴드는, 한 번쯤은 라이브로 듣기를 자신 있게 추천한다.

### 밴드, 한 번 들어보길

음악은 항상 내 일상에 있었다. 그때그때의 기분과 상황에 따라 다른 장르를 들었지만 밴드 음악은 유독 오래, 그리고 앞으로도 들을 것이다. 처음엔 그냥 소리와 분위기가 좋아서, 순간의 기분을 좋게 해줘서 듣기 시작했는데 조금 지나서는 내 플레이리스트 대부분이 밴드로 채워졌고, 직접 기타를 들고 무대에 서기도 했다. 수많은 공연장에서 밴드맨의 열정과 소리를 온몸으로 느끼고 함께 호흡하면서 이 감정을 많은 사람들이 느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밴드 음악이라고 해서 다 거칠고 시끄러운 것도 아니고, 반대로 다 잔잔하고 감성적인 것도 아니다. 지쳐 있을 때 기운을 주는 노래도 있고, 흥분을 가라앉혀 주는 노래도 있다. 어쩌면 이미 당신도 모르게 어딘가에서 밴드 음악을 듣고 있었을 수도 있다. 어쩌면 나처럼 당신도, 어느 순간 밴드 음악에 빠져들게 될지도 모른다. 이 글을 읽고 나서 ‘한 번쯤 들어볼까?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겼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밴드, 한 번 들어보길. 그러다 보면 언젠가 무대 앞에서 그 울림을 온몸으로 느끼며 “나도 영원히 이 콘서트에 머물고 싶다”라고 말하게 될지도 모른다.